

공안 도움으로 잃어버린 3살 아들 21년 만에 되찾아

‘가족 상봉’은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최근, 안도 시민 장선생 내외는 안도현공안국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3살짜리 아들을 21년 만에 되찾아 ‘가족 상봉’의 꿈을 이루었다.

2003년 장선생의 안해는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대련에 려갔다가 부주의로 아들을 잃어버렸다. 21년 동안 줄곧 포기하지 않고 찾아해봤지만 찾지 못했다. 지난 5월, 안도현공안국 형사수사대대는 단서에 대한 대조 및 DNA 검사 감정을 거쳐 료녕성 영구시 모 복리원에 사는 장모가 그들이 잃어버린 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상황을 료해한 후 경찰은 즉시 영구시에 가서 조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이 주민이 바로 장선생이 21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안도현공안국 형사수사대대 법의는 “2024년 5월까지 전국 ‘단원(團圓)’ 시스템이 가동된 지 8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도합 5,189건의 아동 실종 정보를 발표한 가운데 5,113명의 아동을 되찾아 실종율이 되찾기율이 98.5%에 달했다.



▲ 감격적인 상봉 장면

공안부는 2009년에 이미 전국 유괴 수사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에 5,000여개의 무료채혈점을 설치했다.”고 하면서 “만약 신변에 유괴당한 여성, 아동의 부모나 신원불명의 피유괴 의심자가 있다

면 그들을 동원하여 린곤 공안기관에 가서 무료로 혈액을 채혈할 것”을 권장했다. 안도현공안국 관련 책임자는 “계속하여 실종자 가족 및 실종 의심자들에게 정보 수집과 ‘단원행동’

관련 단서 조사 작업을 추진하여 전력으로 실종자를 찾고 많은 가정에서 상봉을 이룩하도록 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리전기자 /사진 안도현융합매체중심



매하구 조선족 단오맞이 율놀이대회 성황리에

6월 10일, 매하구시 ‘민족단결 한집안’ 위원회 및 제1회 조선족율놀이대회가 매하구시 장백산식물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매하구시당위 선전부와 시당위 통전부, 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관광국 주최, 시민족문화관 주관, 시민보성식품유통회사, 시정진사관리위원회, 시조선족중학교와 시조선족실업소학교에서 후원한 이번 대회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며 매하구 시민들의 행복감을 제고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매하구시조선족실업소학교의 복춤과 민족복장 패션쇼에 이어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개막식은 매하구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관광국 부국장 광봉비가 주재, 부국장 오월이 격정에 넘치는 축사를 하고 매하구시당위 통전부 부장



리광염이 북을 울려 대회 개막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는 조선족을 위주로 민족, 회족, 몽골족 등 기타 소수민족 대표들도 초청으로 활동에 참가했다. 너

도나도 형형색색의 민족복장을 차려입고 나선 현장은 민족대단원의 명절 분위기로 흘러넘쳤다.

이날 500명의 소수민족 선수들이 100개 팀

으로 나뉘어 12개 경기장에서 율놀이 시합을 벌였다. 드넓은 광장 여기저기에서 “모야!”, “겔야!”, “잡았다!”... 함성이 터져나왔고 성적이 좋게 나온 팀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자 선수들과 천명을 웃도는 관중들이 경기장 주위의 그늘진 곳에 웅기종기 모여앉아 정성 들여 준비해 온 맛갈진 음식들을 차려놓고 즐거운 식사를 즐겼다.

이어 여기저기서 음악소리가 들려오며 오후 시합이 시작되었다.

한편 경기장의 동서 양쪽에 설치된 민족특색음식판매구역에서는 배추김치, 순대, 여러가지 떡, 막걸리, 명태, 랭면 등 조선족 특색음식과 몽골족의 말린 소고기, 회족의 ‘남(구운떡)’ 등 음식들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었다.

오후 결승전에서는 치렬한 각축을 거쳐 매하구시 서구역 37팀이 1등 상을, 매하구시실업소학교 6팀이 2등상을, 매하구시조선족부녀협회 13팀이 3등상을 따냈

으며 류하현민족문화활동협회대표팀, 조선족스리랑대표팀, 매하구시 서구역로인협회 35팀이 4등상을 획득했다.

매하구시민족문화관 부관장 손동수는 “이번 활동은 민족단결을 한층 더 촉진하고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고 충분히 긍정하면서 “향후 민족문화관은 다양한 행사를 활발히 펼쳐 무형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문광호특약기자



장백현 조선족 로인과 부대 장병들 단오명절 즐겁게

최근, 전통 명절인 단오절을 맞이하여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는 민주번회의 10명 여성회원들을 조직해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백산지대 장백대대를 찾아 위문하고 함께 쫑즈(粽子)를 만들면서 즐거운 단오명절을 보냈다.

로인들은 부대 장병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하고 나서 그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나이는 얼마이고 집은 어디에 있는가?”, “부대에 입대한 지는 몇년이나 되는가?”, “여자친구는 있는가?”, “집생각은

안 나는가?” 등 사업과 생활 상황에 대한 문의가 오가면서 현장은 따뜻한 온정으로 차넘쳤다. 이어 로인들과 장병들은 함께 쫑즈를 만들고 맛있는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장백대대 해당 책임자는 로인들의 따스한 명절 위문에 감사를 드리고 나서 “장백현은 제2의 고향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조국을 보위하고 변강을 건설하며 군민 대단결과 민족단결을 한층 더 강화해 새 장백 건설에 기여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최창남



연변, 4건의 불법 선물수수 문제 통보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규률검사위원회 검찰위원회는 중앙 8항 규정과 시행 규칙의 정신을 착실히 리행하고 규률 집행이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자 4건의 전형적인 불법 선물수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변발전개혁위원회 전임 당조 성원이며 부주임인 오광철이 규정을 어기고 선물을 수수한 문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오광철은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관리봉사 대상자로부터 양주, 해삼 등 고급 선물을 받아챙겼는데 환산하면 도합 3만 8,500원에 달한다. 오광철에게는 기타 엄중한 규률위반과 위법 문제도 존재한다. 2023년 10월, 오광철은 당적 제명, 공직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따라 심사, 기소되었다.

왕청현정협 전임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리수순이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수수한 문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리수순은 부하와 관리봉사 대상자로부터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현금과 상품 구매 카드를 받아챙겼는데 환산하면 모두 23만 5,000원에 달한다. 리수순은 또 기타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도 있다. 2024년 2월, 리수순은 당적 제명, 공직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의해 심사, 기소되었다.

안도현교통운수국 전임 당조 서기이며 국장인 강품신이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수수한 문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강품신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리봉사 대상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등 면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 도합 6만원을 받아챙겼다. 2024년 5월, 강품신은 당내 직무 취소, 정무 해직 처분을 받았다.

도문시교통운수국 전임 1급주임과 원 조창남이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수수한 문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창남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관리봉사 대상자에게 공사 대상을 수수하는 등 면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 도합 4만 8,000원을 받아챙겼다. 2024년 3월, 조창남은 당내 엄중경고(영향 기간 2년), 정무 해직 처분을 받았다.

/오건기자

연길시, 19개 중점 오수배출 기업에 대한 감측 진행



최근, 연길시생태환경감측소는 연길시 19개 중점 오염원 오수배출 기업에 대한 오수 감측을 진행했다.

연길시생태환경감측소는 연길시의 중점 오염원 오수 기업에서 배출하는 수질이 안정적인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생활오수 정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업의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측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공업기업, 6개 의료기구, 2개 오수처리장, 1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오수 감측을 진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생태환경감측소는 2개의 현장 감측물 추출 소조를 설립, 소조마다 2명 일군을 배치하여 감측물을 추출했다. 추출 과정에서 관련 일군은 각 추출물 시험병에 표

을 붙이고 기록표에 원시기록을 적으면서 추출물의 충분한 대표성, 완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했다.

감측물 추출을 마치고 모든 추출물을 실험실에 인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5일내에 검측 보고서를 발급했으며 검측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사업에 착수했다.

연길시생태환경감측소는 장기화, 일상화 감측관리 기제를 보완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며 수질 감측관리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환경보호시설의 운영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기업의 오수환경 종합 정비에 기술적 지지와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정현관기자